미술 신간, 예술과 인문학 사이

BOOK 신간

미술사, 미학, 비평, 사진론, 페미니즘 이론서 등 신간 다섯

2023 / 03 / 13

김예화



노순택, 『말하는 눈』, 한밤의빛, 2022 / 김이순 외 12인, 『한국 미술 다시 보기』, 현실문화, 2022 / 레거시 러셀, (다연 역), 『글리치 페미니즘 선언』, 미디어버스, 2022 / 이영욱 외 8인, 『비평으로 보는 현대 한국미술』, 메디치미디어, 2023 / 김홍기, 『지연의 윤리학』, 워크룸프레스, 2022

다가온 봄, 시나브로 피어나는 꽃만큼이나 미술계에도 볼거리가 많은 계절이다. 겨우내 주춤했던 전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아트마켓도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올해엔 미술과 친해지기로 마음먹었다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전시만이 아니다. 조선의 서화가 유한준이 말하기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미술도 다르지 않다. 물론 아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술을 사랑하기에, 그래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고 싶은 이를 위한 신간을 소개한다. 인문학과 미술을 오가는 여기 다섯 권으로 유의미한 첫 단추를 끼워보자.



김관호, 〈해질녘〉, 1916, 캔버스에 유채, 127.2×127.2cm, 도쿄예술대학미술관 소장.

며 빨래질하는 모습, 학생이 공부하는 모습,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 대장장이, 숯구이, 지게꾼도 좋은 그림재료가 아닐 수 없다. 기이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맑고 높은 이상적인 화제만 구하던 구화舊畫의 안목에는 이같은 평범한 일상다반사가 무미한 듯 하려니와, 도리어 이 생생한 실사화의 재료에서 청신하고 친근한 쾌감을 얻는 것이니 인연도 없는 상산사호商山四皓[53]를 보는 것보다 우리에게 친근한 농부나 공장工匠의 상태를 보는 것이 도리어 다정多情하도다. 조선화에도 장차 이 점에 대하여 대변혁이 일어날 줄을 기대하거니와 조선화가 된 자는 나아가 여차하도록 즉 자유롭게 소재를 취하도록 함이 가할지라.

제이의 차이점은 구화는 화稿를 보고 그리되, 신화는 실물을 보고 그리니 예전에는 송죽매죽松竹梅를 그렸던 자로 실물에 마주해서 그리는 자는 기인奇人이요. 대개 옛사람의 그림을 암송하여 다른 종이나 비단에 다시 그림에 불과한지라. 그러므로 천편일률이오 새로운 맛이 없었으나 신화는 반드시 실물에 즉하여 정밀히 그 특징과 미점美點을 연구하여 묘사하는지라. 그러므로 각각 자가自家 발명發明함이 있어 그 내용이 충실하고 풍부하며 또 진복 이어진 것이라. 오늘날은 여자의 나체화를 그리되 반드시 '모델實模型'에 즉하여 하나니 그러므로 그림에 생명이 떠다니는 것이라.

그밖에 색채 사용과 구상법에 큰 차이가 있으나 이것도 멀지 않은 장래에 곧 따라잡을 줄을 확신하며 내가 미술의 안식이 없으며 합리적인 비평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구경의 글을 쓰게 됨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거니와 군 등의 그림이 전람회에 다수 입선하게 되는 날에

53 중국 진시황 때에 난리를 피하여 산시성 상산商山에 들어가서 숨은 동원공, 기리계, 하황공, 녹리 선생 등 네 사람을 이른다. 호칭한 최다는 뜻으로, 이들이 모두 눈썹과 수염이 흰 노인이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이처럼 중국의 전설적인 인물들을 가리키는 '인연도 없는 상산사호'란 말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뜻한다.

이영욱 외 8인, 『비평으로 보는 현대 한국미술』, 메디치미디어, 2023 내지.

『비평으로 보는 현대 한국미술』은 미술비평가의 시선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100년을 돌아보는 책이다. 이영욱 김경연 목수현 오윤정 권행가 최재혁 신정훈 권영진 유혜종 등 총 9인의 연구자가 집필에 참여했다. 처음으로 서구식 '미술'이 도입된 18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각 필자가 시대를 개관하고 주요 문헌을 선별했다. 엄선된 138편의 글로 당대 비평가가 직접 보고 느낀 미술 격변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서구의 관점을 내면화하는 시각 장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프로파간다, 해방된 사회를 향한 투쟁 수단, 자의식의 표현 등 미술개념의 변화사를 한눈에 보도록 정리했다. 책의 또 다른 재미는 1950년대 이전 비평의 발굴이다. 원문을 찾아보기 힘들어 제목이나 일부 내용만 전해지던 글을 최초 공개했다.



그림1 오인환,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곳, 서울›, 2001, 황가루, 가변설치, 563×530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작가 제공

붕괴와 접합:
불/가능한 전시기획

진행: 정현
토론: 이영철(계원조형예술대학 교수), 기혜경, 김장언, 장승연
일시: 2019년 3월 30일

정현 이번 좌담은 그간 이영철 선생님이 기획했던 전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다. 선생님께서 '붕괴와 접합'이라는 주제를 제안해주셨는데, 우리의 연구 역시 이와 관계가 깊다고 생각한다.

초기 큐레토리얼의 출현

이영철 세계화, 전 지구화가 지역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은 양자를 함께 생각해야 하는 새로운 사유의 길이 열린 것을 말하므로(모두가 부정하는 신자유주의가 열었다!) 우선 외부 환경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대적 흐름을 의식하지 않고 이야기해보고 싶다. 90년대 이후 미술에 대해 말하는 것과 전시기획을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으로 여겨졌다는 점은 상당히 큰 변화라고 여겨진다. 전시기획은 더 이상 미술의 배경이나 보조적인 위치가 아니라 미술에 프레임을 만드는 중심이 되었다. 전시기획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미술이 전화해온 역사의 일부로 전열되고 매개되고 토론되는 방식들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일을 말한다. 전시에서의 현시 방식은 어떻게 비롯되고 조직되는가. 미술은 어떻게 믈 지워지며 어떻게 말해지며 어떻게 개념화와 생산에 책임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표현되는가를 아는 일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술은 '전시 속의 미술'인 것이며, 이때 전시를 언어적·비언어적 수행 과정이 형성하는 '구성체'로 파악함으로써, 큐레이팅이라는 실천의 의미, 즉 큐레토리얼이라는 지금은 고유명사의 지위를 얻은 형용사의 의미가 얼굴을 드러낸다. 이는 서구에서 80년대 후반 들어와 '담론적(혹은 언술 행위의) 전환'이라는 술어의 등장과 함께, 이 기간에 독립 큐레이터, 전시-저자, 예술가-큐레이터, 전시의 저작권, 전시의 자율성 등 큐레이터 중심의 담론이 발생했다. 세계화 과정에서 전시들이 엄청 증가하면서 30여 년이 경과한 지금에는 넘쳐나는 증거들이 도처에 쌓이고, 그에 따라 전시기획을 문화적 생산과 매개라는 관명한 실천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예술가, 큐레이터들, 큐레이터 콜렉티브들은 문화 생산의 장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행위자들(비인간을 포함하는)과 대행자들을 이해하면서 예술 작업의 한계와 경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되묻는 새로운 변화가 생겨났다고 하겠다.

좌담의 키워드로 '붕괴와 접합'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이유는, 제도 비판이라는 동시대 미술 담론에 있어 하나의 굵은 줄기를 형성한 것에 조응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며, 본인이 90년대

김이순 외 12인, 『한국 미술 다시 보기』, 현실문화, 2022 내지.

앞의 책이 비평사의 관점에서 한국 미술을 살핀다면 『한국 미술 다시 보기』 시리즈는 '이슈'를 중심으로 미술사를 분석한다. 1950년대에서 2008년까지 미술계를 관통했던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췄다. 김이순, 김종길, 정현 등 국내 미술씬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13인의 연구자가 2018년부터 3년간 진행한 워크숍과 세미나, 좌담회의 결과를 엮었다. 당대 미술의 주요 의제와 사건, 문헌 등의 관계를 짚어가며 우리 미술사를 입체적으로 조망했다. 1권은 현대미술의 각 장르가 정립된 시기를 다루고, 2권은 진영 간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던 미술운동에 초점을 맞췄다. 마지막으로 3권은 다각화된 큐레이토리얼 키워드에 주목했다. 각 권의 말미에는 당대 활약한 미술인사의 구술 기록을 실었다. 사료로 남지 않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김홍기, 『지연의 윤리학』, 워크룸프레스, 2022 내지.

다초점으로 보는 아트월드

『지연의 윤리학』은 미술비평가 김홍기가 지난 10년간 잡지, 도록 등을 통해 발표한 글을 정리한 비평집이다. 김홍기는 비평을 '미술의 동시대성을 규정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한다. 미술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에, 미술비평은 현재성과 현장성을 갖춰야 한다. 그가 포착한 동시대성은 '지연의 윤리학'이다. "미술은 쏟아지는 선잠에서 인간의 의식을 깨우려는 몸짓이다. 가장 깊은 밤에 느닷없이 들리는 기침 소리와 비슷하다. 거세게 달리는 디지털 시대의 기관차를 지연시키려는 브레이크의 마찰음과 같다. 우리는 동시대미술의 이러한 태도를 지연의 윤리학이라고 부른다." 저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맞서 판단을 유예하고 충분히 사유할 시간을 갖는 '지연'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비디오아트의 슬로 모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지연의 윤리학'을 동시대예술 전반에 적용했다. 임영주, 전소정, 남화연 등의 미디어아트부터 윤대희, 양유연, 문성식 등 회화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현대미술에 내재한 지연의 미학을 제시했다.

07 글리치는 반신체다





— 오션 브엉, 「기로」

글리치는 반反신체(anti-body)다. 강압적인 사회적, 문화적 건축으로서의 신체에 저항한다. 형태 없고 추상적이고 우주적인 무언가를 우리는 신체로 형태화한다. 철학자 장 뤽 낭시Jean-Luc Nancy가 이를 다음과 같이 완벽히 전달한다. "세상 그 어느 누구든 '신체'보다 잘 아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 고대 문명의 가장 많이 가꿔지고, 샅샅이 살펴지고, 교정되고, 해체되고, 재건되어온 최신 상품이다."[81] 신체에 형태를 부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화가이자 영화감독인 린 허쉬먼 리슨의 1994년 에세이 「반신체를 구애하며: (사이버)공간 속 욕망과 갈망」에 소개되는 '반신체' 개념은, 글리치를 신체의 사회적, 문화적 골조에 저항하는 양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준다.[82] 리슨은 반신체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컴퓨터 바이러스처

레거시 러셀, (다연 역), 『글리치 페미니즘 선언』, 미디어버스, 2022, 내지.

『글리치 페미니즘 선언』은 큐레이터 레거시 러셀의 첫 저서다. 저자는 2013년에 창안한 '글리치 페미니즘'을 토대로 사이버 페미니즘 매니페스토를 집필했다. 사이버 페미니즘이란 디지털 세계를 중심으로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뉴 페미니즘 운동이다. 러셀은 여기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에러를 의미하는 '글리치'를 키워드로 사용한다. 사회가 부여한 성 역할에서 벗어난 여성성은 가부장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결함'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이러한 결함은 오히려 사회가 제한한 경계를 깨부수는 특이점이다. 러셀은 문제로 치부되던 글리치를 내세워 정체성을 자유롭게 규정할 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은 줄리아나 헉스타블, 손드라 페리, 보이차일드 등 규범에 도전하는 현대예술가를 중심으로 글리치의 사례를 탐구했다. 또 역사에서 배제된 여성 예술가를 소환해 글리치를 적용하며, 독자를 글리치의 여정으로 안내한다. 디지털과 물질의 경계가 옅어졌듯이, 사이버 페미니즘의 힘은 현실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 글리치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어젠다가 아니다. 젠더, 인종, 섹슈얼리티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데에도 글리치는 작용한다. "사람은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되어가는 것이다."



노순택, 『말하는 눈』, 한밤의빛, 2022, 내지.

『말하는 눈』은 사진가 노순택의 사유를 응축한 '사진론'이다. 노순택은 사진가로서는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아티스트다. 분단 현실을 주제로 삼는 다큐멘터리 사진은 물론, 격동의 작업 현장을 담은 솔직담백한 수필로도 유명하다. 정치학을 전공하고 기자로도 활동한 저자는 한국 사회의 배면을 포착하고, 그 의미를 사진과 글로 표현한다. 특히 신간에서 그가 고찰하는 주제는 '사진의 이중성'이다. 밥 먹듯 사진을 찍는 시대에 우리는 사진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사진은 있는 그대로를 다루되,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사진이 곧 진실은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진실도 아니다. 사진의 주관성은 약점인 동시에 숨은 진실을 드러내는 힘이다. 노순택은 이러한 관점에서 사진의 함정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뒤바꾼다. / 김예화 인턴기자